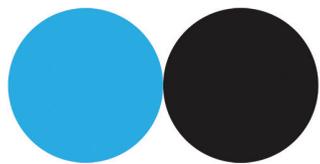


2017



YTN
INSIDE

07
vol.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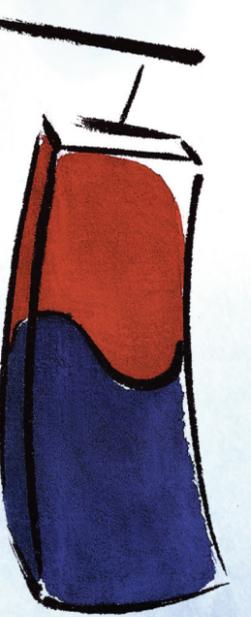
YTN

더 나은 내일을 전합니다

국제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침묵 탄소산업도시, 전주

탄소산업전주
일자리 창출



Content 07 vol 11. 2014

IN

- In Newsquare**
 - 04 김지선 | '돈칠기삼'?... '3할의 맘'으로 승부를 걸다!
 - 06 김수진 |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픽의 매력
- Exclusive Now**
 - 08 최원석 | 끝나지 않은 세월호... 추모를 위한 추적
 - 10 조은지 | '축구 기자의 꿈' 월드컵을 다녀와서
- 일구는 사람들 _ Make Your YTN**
 - 12 유영식 | 혁신과 변화로 달려온 1년... 강한 심장으로 다시 태어나다!
- 핫 코너 - 이 방송, 궁금하다**
 - 14 김수민 | YTN 신사옥에 고소한 팝콘의 향기가?
 - 16 이세나 | 색다른 톡 ... 국내 최초 낄씨 쇼, 캐스터들의 수다!
 - 18 신 율 | "당신의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미디어 클리닉 _ 이런 소리, 저런 사진**
 - 20 윤현석 | "YTN, 세계수준의 뉴스에 도전해야"



SIDE



- 홍경한의 아트스퀘어**
 - 22 홍경한 | 하태임의 색채미학... 의미의 중첩 '소통'으로서의 시각예술
- 앵커의 변신**
 - 24 김시호 | "반짝반짝 빛나는 뉴스를 하고 싶어요" 반짝이는 그녀의 일과 삶 _ 김선영 앵커
- 기자萬象**
 - 26 양일혁 | 기자 아빠 분투기 "오! 나의 1진님"
- YTN 달인들**
 - 28 임수근 | '빨리 또 멀리' 아침을 달리세요!
- 낭만인 탐구**
 - 30 송병준 | IT와 기타의 앙상블을 꿈꾸다!
- I Love YTN**
 - 32 박수화 | 특별한 뉴스로 더 나은 내일을 전하는 YTN을 다녀와서
 - 34 J.자르갈사이한 | "YTN 통해 국제정세 빠르게 파악해요!"
- 상암도차有맛집**
 - 36 이은비 | 식당, 가락, 행복가
- 컬처 스케치**
 - 37 폴리처 사진전 / 강수진 발레전 / 계시판



표지

하태임 작

'컬러밴드'의 작가 하태임의 작품은 투명한 컬러가 중첩되는 맑고 화사한 색채감이 특징. 단순명시적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회화적 역동성과 리듬감을 도모하고 만곡형태의 반복적 구성을 통해 화면의 확장과 깊이를 추구한다.

자신의 컬러밴드 작품과 조각을 응용한 YTN 로고를 조합해서 만든 표지작품을 통해 작가는 올곧은 역할과 가치를 표방하는 뉴스전문채널로써 시청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신념의 상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발행인 배석규 | 편집 홍보 · 시청자팀
121-904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76 YTN 뉴스퀘어
TEL 02.398.8000 | 팩스 02.398.8585
휴대폰 YTN 뉴스 청취 200-2424
디자인 · 인쇄제작 | 아이아트플러스 02.2272.9807



뒷줄 왼쪽부터 : 임계완 / 송인승 / 이은실 / 김지선 / 상수중 선거단장 / 김한철 차장 / 강창국 차장 / 이지은 / 전용화 기술연구소장 / 신희묵 / 박해석
앞줄 : 봉원석 / 오재영 차장

‘돈칠기삼’?... ‘3할의 땀’으로 승부를 걸다!

김지선 | 선거단

어리둥절 ‘발단’

겨울의 미련이 온몸으로 느껴지던 2월 마지막 주의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기다리며 이메일을 열다 ‘인사발령’을 발견하곤 슬며시 미소가 떠올랐다. ‘드디어 충원이 됐으려나?... 쿵! 익숙한 이름 옆에 선거단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물어 물어 찾아간 선거단. 일주일 먼저 자리를 잡은 상수중 선배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여기에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래픽팀의 오재영 선배는 미리 준비한 초안을 펼쳐 보이며 든든함을 선사했다. 이에 질 세라 기술연구소

신동훈 선배가 선거 일정표를 들고 특유의 총총 걸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로봇 태권브이가 합체하는 느낌이었다. 마지막으로 합류한 이지은 선배가 조종석에 앉았다. 부릉부릉~! 즐거운 우리의 업무는 그렇게 시작됐다.

스토리 ‘전개’

준비가 한창이던 4월 초, 회사가 상암동으로 옮겨 왔다. 1995년에 출범했으니 스무 살이 되는 해에 새 터전에서 새 꿈을 꿈꾸게 된 것이다. 선거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스무 살’이 보였다. 바로 전국동시지방선거였다. 1995

년 부활해 올해 6번째로 치러지는 지방선거 역시 YTN과 동갑내기, 스무 살이었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 그 동안의 과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시기다. 이렇게 선거 방송의 스토리 콘셉트가 정해졌다. 지난 20년 지방선거의 명과 암을 돌아보는 각종 아이템에서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선거를 쉽게 풀어보는 ‘한 표의 중요성’과 ‘한국선거는 어렵다’까지, 콘셉트가 정해지자 일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 정치부와 사회2부가 복병처럼 버티고 있었다.

침몰과 ‘위기’

‘어느 날 갑자기’ 세월호가 침몰했다. 규모도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보도국 지원마저 바랄 수 없게 된 것이다. 하필 이맘 때 지상파 선거단의 소식까지 들려왔다.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과 10명을 가볍게 넘기는 인력은 기본, 외주제작물과 스튜디오에 수억 원을 쏟아 붓고 마술쇼를 펼칠 신기술 도입에 10억 원도 모자라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니 사기는 추락을 거듭했다.

하지만 우리의 주 무기는 ‘헝그리 정신’이 아니던가? 콘텐츠로 승부하기로 했다. 수억 원짜리 외주 제작물은 각 도청에서 공수한 사진들로 재구성했다. 임계완, 봉원석, 두 디자이너의 손을 거치자 낡은 사진들이 아기자기한 영상물이 됐다. 사회2부와 영상취재부의 지원을 받은 영상은 영상편집부 이현수 선배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났다. 터치와 가상스튜디오를 연계해 그래픽을 던지는 나름의 신기술은 기술연구소의 이은영 선배가 맡았다. 남들은 돈 주고 한다는 트위터 데이터 수집도 연구소에서 직접 했다. 현란한 마술쇼 대신 노련한 앵커들의 전달력을 믿기로 했고, 세트는 신사옥 스튜디오를 활용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다.



‘절정’ 그리고 ‘D-day’

D-7. 선거방송의 가장 중요한 일주일일이 찾아왔다. 그동안 만든 제작물을 PD와 앵커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거방송의 성패를 결정하는 일인 만큼 개인과외도 불사했다. 그리고 공은 넘어갔다.

드디어 D-day. 넘어갔다고 생각했던 공은 여전히 우리 손에 있었다. 하루 종일 울리는 전화에 눈코 뜰 새가 없었다. 그 와중에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스치듯 던지는 칭찬 한 마디가 눈물겹게 고마웠고 지상파의 화려한 세트에 눈을 떼지 못하는 동료들을 보면 슬그머니 서운함도 올라왔다. 그렇게 떨리는 서른 시간이 지나갔다. 마칠기삼. ‘말의 능력이 칠, 기수의 능력은 삼’이라는 경마 용어란다. ‘돈칠기삼’ 선거방송에서 7할의 돈보다 3할의 땀을 눈여겨봐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새벽부터 나와 무한 대기를 마다하지 않은 제작기술부 선배들과 다음 날까지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가 녹화를 마쳐준 강진원, 두수진, 김현아 피디, 안보라 앵커와 김용래 기자에게는 특별한 감사함을 더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픽의 매력

김수진 PD | 화면 R&D팀

YTN이 상암동 시대를 열고, 새로운 그래픽 장비를 들여놓게 되면서부터 'VR/AR 담당 PD'라는 사전에도 없는 역할을 맡게 됐다. 아직 이 분야에 대해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해를 돕기 위한 약간의 설명을 먼저 하려고 한다.



AR :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 현실(실사) 위에 3차원 가상 그래픽을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 YTN의 방송 현장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실제 스튜디오 안에서 오브젝트(그래픽으로 만든 물체나 글씨 등)를 띄우는 방식으로 표출된다. 오브젝트는 항상 사람 앞으로 나옴.

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까지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사람과 상호작용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술. VR은 배경까지 모두 그래픽으로 만들고, 촬영도 사방이 크로마월인 '블루 룸'에서 진행. 오브젝트를 사람 앞 혹은 뒤로 보낼 수 있으며, AR에 비해서 물리적인 조건을 벗어나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더 크다는 장점이 있음.



AR이나 VR은 기존 평면적인 그래픽과 비교해서 1.애니메이션이 가능하고(실시간 렌더링 기능) 2.줌인, 줌아웃이 가능해 역동적인 화면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는 재미가 있다. 오브젝트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카메라가 잡아내는 세계 안에서는 실제 물건이나 사람과 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줌인 줌아웃도 가능하고 각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오브젝트와 출연자의 상호작용이 더해지면 더 훌륭한 재미를 줄 수 있다. 그래픽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만큼 '공간'과 카메라 샷에 대한 이해는 필수!

물체를 그래픽으로 만드는 3D 모델링 작업에 장시간이 걸리는 만큼 어떤 아이템이 AR/VR로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YTN과 같은 제작 환경에서는 3D 오브젝트를 고집하지 말고 크기가 큰 사진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특히 이번 월드컵에서는 생생한 선수들 사진이 많아서 사진을 이용해 마치 스튜디오 안에 인물이 등장한 듯한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었다. 반면에 기존 노멀 그래픽처럼 문자로 표현한 정보를 AR/VR로 표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어디까지나 AR/VR은 그래픽, 즉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

단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비주얼 스토리텔링'이 중심이 되는 만큼 데이터나 도표 중심인 콘텐츠나 지리적인 정보, 구조를 설명하는 경우, 인물 이야기 등을 표현하기에 좋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인물'과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선거 아이টে를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었다. '데이터'로 팀 전력을 분석하는 게 트렌드인 월드컵 역시 마찬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리포트의 모든 부분이 아니더라도 포인트만 AR이나 VR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중파에 비해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갖고 있는 YTN이지만, 스토리텔링에 대한 고민이 좋은 기획으로 연결돼서 제작한다면 AR/VR로 얼마든지 더 고급스러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연합 프리미엄 뉴스'를 통해 들어오는 사이즈가 큰 사진이나 그래픽 콘텐츠를 AR/VR 콘텐츠로 활용하면 제작 시간은 단축하면서도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생생함을 살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주얼 스토리텔링'이 트렌드인 요즘, YTN에 부족한 입체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방법이면서도 생산성이 제법 높아서 앞으로 YTN이 화력을 집중해야 할 분야가 아닐까 싶다.

Visual Storytelling

이번 월드컵에서는 생생한 선수들 사진이 많아서 사진을 이용해 마치 스튜디오 안에 인물이 등장한 듯한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었다.

追慕 끝나지 않은 세월호 추모를 위한 추적 追跡

최원석 기자 | 사회 1부

누군가를 뒤쫓을 때 중요한 건 흔적이다. 배설물이나 발자국,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걸린 털뭉치는 모두 사냥꾼에게 중요한 실마리다. 흔적을 찾기 어려운 숲속 저 멀리, 추적 대상과 함께 생활하던 무리가 눈에 띈다면 마찬가지로 단서다. 추적은 사방에 흩어진 이런 실낱같은 단서가 있을 때 이어진다.

누군가를 추모할 때도 흔적은 중요하다. 주인 없이 물에 젖은 옷가지, 더 이상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휴대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 온 메시지의 시간이 그렇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뺨어도 손에 잡히는 온기가 없을 때, 누군가에게 흔적은 옷이 그 자체로 고맙고 소중하다. 4월 16일 이후 취재현장은 두 가지였다. 남아 있는 흔적을 가슴에 묻거나, 사라진 흔적을 뒤쫓거나.

검찰과 경찰은 세월호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한 유병언을 분주하게 쫓았다. 그리고 전남 순천의 별장에서 그 조력자를 잡았다. 수일 안에 유병언도 잡힐지 모른다는 말이 돌았다. 검찰이 뭔가 단서를 잡았으려니 하며, 출장조가 꾸려졌다. 촬영기자 시절우 선배, 오디오맨 성재규, 그리고 지창휴 운전기사님. 순천행 승합차에 타고 회사에서 출발하던 그날, 사실 내 짐 가방에는 속옷도, 양말도 단 3일 치뿐이었다. 유병언을 앞에 세워놓고 TV로 중계를 연결하는 장면을 상상했다. “당신은 왜 도망다니고 있습니까?” 정말 묻고 싶었다.



송치재 별장 안에는 옷가지가 가득 담긴 여행가방과 녹차밭 관련 땅문서, '아해' 이름이 적힌 각종 성경과 생수병이 널려 있었다. 각종 유기농 식재료도 집안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설록 홈즈' 행세나 다름없었다. 동굴과 토굴을 찾고, 구원과 교회를 뒤지고, 매일같이 '다판다' 매장 주변을 취재했다. 알수록 그 거대한 욕심에 화가 났다. 취재였지만 추적이었고, 추적이었지만 꼭 수사 같았다.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또 취재진과 시민들 모두 어수선한 숙박꼭질에 동참했다.

추적을 당하기도 했다. 어떤 여성이 YTN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미 검찰이 구속한 추모 씨와 행적이 묘연한 부인 박 모 씨가 운영하던 매장이라 이상할 것은 없었지만 머리털이 쭈뼛 섰다. 유병언의 흔적은 그렇게 나타난 듯 하다가 홀연히 사라졌다.

순천을 헤집던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스릴이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4월 16일에 있던 일을 되새겨야 했다. 시작은 분명했지만 끝은 없었다. 왜 뛰고 있는지, 무엇을 쫓고 있는지 희미하게나마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그런 노력에도, 이 모든 일이 겨우 두 달 전 한 고등학교의 수학여행에서 시작됐다는 생각을 하면 무척 어지럽고 아찔하다. 이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나마 동료들과 나눌 수 있다면, 다만 우리는 추모를 위해 추적을 하고 있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까. 이 기록도 작은 흔적으로 남겨,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이 편안히 세상을 떠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축구 기자의 꿈’ 월드컵을 다녀와서

조은지 기자 | 스포츠부

월드컵은 축구 선수에게도 그렇지만, 축구 기자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무대'다.

시대를 주름잡는 스타 선수의 플레이를 바로 눈 앞에서 접할 수 있고 생생한 그라운드 의뢰를 곁에서 느낀다. 취재 열기도, 대중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겁다. 신문기자로 일하다 이직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월드컵 취재 꿈은 거의 단념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기회가 주어졌다.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서 치러지는 월드컵이라니! 월드컵은 4년마다 반복되지만, 브라질에서 열리는 대회는 특별하다. 축구 기자에게겐 그야말로 '로망'이다.

현지 취재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월드컵 취재진 중에 우리만 AD카드가 없었다. AD카드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경기를 내려다볼 수 있는 기자석에도 들어갈 수 없고, 경기 전후의 기자회견과 팀별 공식 훈련도 볼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입장권을 사서 관중석에서 경기를 본 뒤 경기 종료 직전 부랴부랴 뛰어나와 정신없이 카메라 앞에 서야 했다. 오디오와 화면을 보내야 하는데 인터넷 사정도 워낙 좋지 않았기에 가까운 식당으로 뛰거나, 잔디밭에 쪼그려 앉아 일하기 일쑤였다. 육체적으로 힘든 건 상관없지만 생생한 현장을 접할 수 없는 건 정말 아쉬웠다. YTN의 위상을 생각하니 더욱 속상했다.

개최국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의 개막전. 7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상파울루 아레나를 빼곡하게 메웠다. 노란색 유니폼을 갖춰 입고 목이 터져라 브라질을 응원했다. 집단이

내뿜는 순수한 열정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단정하게 도열한 선수들은 목이 타는 듯 입술에 심 없이 침을 문혔고, 큰 소리로 국가를 불렀다. '영원한 우승후보' 브라질 선수들조차 떨게 하는 무대라니. 어쩐지 눈물이 나올 것 같아 혼났다. 선수들은 맹수처럼 달리고 부딪혔다. 그래, 이게 바로 축구다!!! 원시적이어서 정직한 종목, 이기든 지든 포기 못하고 무조건 90분을 버텨야 하는 싸움,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경기.

가장 힘 빠지는 건 당연히 우리 대표팀의 처참한 성적표였다. 좋은 소식이라면 신 나게 전할 수 있었을 텐데, 특히 알제리전 대패는 충격이었다. 힘이 무너지는 선수들을 보며 취재하는 입장에서조차 축축 처졌다. 유일하게 선수들을 접할 수 있었던 이구아수 베이스캠프에서도 말 한마디 걸기가 조심스러웠다. 선수들은 슬픈 눈을 하고 기자들을 피했다. 훈련장에서는 애써 분위기를 띄웠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벼랑 끝 승부였던 벨기에전이 끝나고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쏟는 선수들을 보니 마음이 아렸다. 증계권을 사지 않아 웬지 더 어깨가 무거운 상황에서 취재는 '깨알 같이' 했다. 하루에 하나씩의 리포트를 꼬박꼬박 했고, 생중계-TVU 형식의 중계 영상도 만들어봤다.



김재형 선배와 축구 얘기를 하는 대담 형식의 4~7분짜리 제작물(?)을 현장에서 똑딱 만들어 본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한국의 월드컵은 세 경기로 일찌감치 끝났지만 브라질에서 보낸 20일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PS. 어리버리 씩씩하지만 한 초짜 방송기자에게 출장 기간 내내 버팀목이 돼주신 권혁용, 서승철, 김재형 선배 정말 감사합니다. 한 뼘은 큰 것 같아요(과연???) 서울에서 고생하신 완소 스포츠부 선배들과 파견 선배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재형 / 서승철 부장 / 조은지 / 권혁용 차장

혁신과 변화로 달려온 1년... 강한 심장으로 다시 태어나다!

유영식 차장 | 보도국 영상아카이브팀

iNews를 검색하는 동안 "있겠어?"하며 검색해 나온 결과는 우리 팀원의 노고와 땀이 맺힌 결과물임을 YTN 전체 구성원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아무 탈없이 잘 버틴 심장이 덜컥 멈춰버리면 그제서야 우리 팀의 진가를 알 거란 꿈쩍하지만 발칙한 상상을 이따금씩 해본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심장은 자동차의 엔진처럼 뛰지 않으면 곧 사망을 의미한다. 산소와 영양분으로 채운 신선한 피를 온 몸으로 뿜어내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낀 피를 폐로 순환시키는 심장의 모습은 우리 부서의 역할과 흡사하다. 구사육에서 2개였던 수신채널이 8배나 늘어난 16개의 수신채널로 뉴스현장서 LIVE로 촬영하거나 촬영된 화면을 곧바로 TVU·중계차·IP송출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신받아 즉각 방송에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시청자 제보와 외부에서 제공받은 영상을 타사보다 1초라도 빨리 처리해 뉴스 속보로 활용해 오고 있다. '신선한 피'와 같은 현장 화면을 신속히 iNews로

등록해 '뉴스쟁이'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선순환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하루 평균 등록된 1,500여 건의 영상 클립 중 장기 보관할 것과 중·단기로 임시 보관할 영상을 각각의 보관기준에 따라 삭제하거나, 리프한 수신화면을 콤팩트하게 재편집하는 화면 정제작업, 1~2시간짜리 스포츠 제공화면을 하이라이트 자료화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결국 50억 원에 달하는 저장장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로 귀결된다. '낡고 지저분해진 피'와 같은 불필요한 영상을 삭제하고, 핵심화된 영상으로 재등록해 아카이브하는 것은 폐로 보내진 피가 다시 신선한 피로 순환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 부서는 수신·아카이브·메타데이터 3개의 업무파트로 나뉘어 있으나, ' 따로 또 같이.' 다르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 세 바퀴로 굴러가는 자전거와 같다. 수신팀은 송출·웹수신을 24시간 일괄처리하는 통합수신룸을 맡고 있는데, 수신매니저인 한원상 부장 아래 이의주·예상철·김시내·박경화 4명의 수신담당자가 타사에 견주어 '일당백'의 기세로 수신룸을 맡아주고 있다. 아카이브는 백선기 부장이 지하3층 영상자료실 자료 테이프 관리를 하며, 하성준·최준영·윤원식 차장이 아카이브 매니저로 핵심화된 디지털 영상 자산을 차곡 차곡 쌓아가고 있으며, 김진석 차장은 스

포츠 하이라이트 자료화를 담당한다. 끝으로 메타데이터매니저인 필자와 김빈나 씨는 "검색은 권력이자 호모서치엔스로 인류가 진화한다"는 디지털시대에 iNews에 등록된 영상의 메타데이터 데스크킹을 하고 있다. 일관되고 정확한 검색을 위해 잇슈명 통일, 오·탈자 수정, 동의어 처리, 분류작업 등으로 찾고자 하는 영상을 쉽고 편하게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 끝으로 염해진 부국장이 팀장으로 오면서 부서는 1년간 변화와 혁신의 연속이었다. 회사의 경쟁력을 높였던 사례를 지면을 통해 잠깐 소개한다.

하나/ 소홀했던 지국 촬영원본을 일괄 수

거·등록해 영상 활용도를 높였고, 촬영기자가 방송완제를 직접 매칭하도록 해 업무 간소화와 방송사고 방지라는 이중 효과를 거둔 데 이어 지금은 지국 촬영원본이 iNews로 직접 등록될수 있도록 해 콘텐츠 관리의 혁신을 이룬 일

둘/ 흩어진 제보채널을 통합해 공개·비공개·#2424·소셜 메일 제보를 30초마다 자동 업데이트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상왕십리 열차추돌사고에서 첫 단독 화면 1보 방송과 연속된 제보화면을 신속히 처리해 당일 속보·시청률 경쟁에서 타사를 압도했던 일

셋/ 8만여 개의 자료테이프를 재난대비 안전

을 고려해 '소산보관'개념의 영상자료실구축, VCR 편집기와 방송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속한 디지털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독자적으로 추진한 일



윤원식 차장 / 유영식 차장 / 김빈나 / 김시내 / 박경화 / 염해진 팀장 / 최준영 차장 / 김진석 차장 / 한원상 부장 / 백선기 부장



YTN 신사옥에 고소한 팝콘의 향기가?

김수민 작가 | 콘텐츠제작팀



YTN 신사옥에 들어서면 고소한 팝콘 향이 난다?!
 뜬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검증이 필요한 법!
 실제,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 급습해 본 1층 미디어홀 앞에서는
 신나게 팝콘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으며,
 관객들은 한 손 가득 팝콘을 들고 입장하고 있었다.
 소문은 사실로 판명!



수다학

톡톡 튀는 강연콘서트, YTN사이언스 - 팝콘

왜 팝콘 기계는 돌아가고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이 신사옥을 찾았을까?
 바로, 톡톡 튀는 강연콘서트 <팝콘>의 탄생 덕분!
 <팝콘>은, 재미있는 강연, 자주 보고 듣고 싶은 강연을 지향하며 만든
 'YTN사이언스' 야심작이다.
 그런 만큼, 구성도 알차다
 수석석학들의 지식수다로 고민 많은 학부모들의 멋진 수학 지침서가
 돼 줄 신개념 수학콘서트, <수다학>. (방송요일: 월요일 오전 10시)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쉽고 유쾌한 과학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 (방송요일: 화, 수 오전 10시)
 21세기형 청년창업가의 드라마틱한 성공기로
 신개념 창업정보를 전해주는, <청년창업 런웨이>. (방송요일: 목, 금 오전 10시)
 이 세 가지의 독특한 강연릴레이가 팝콘의 큰 틀.
 YTN사이언스를 통해 매일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서,
 현장에서 사람들과 직접 교감하고 소통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다.

사과나무

목, 금 오전 10시

화기애애한 현장 분위기. 녹화장은 살아있다!

특징에 이어 장점도 하나 꼽으라면,
 바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팝콘>이라는 한 프로그램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팝콘에 도넛에 기념품까지 한아름 받아 안고 착석하게 되면,
 어느 새 저명한 학자부터 갓 스타트업한 청년창업가까지,
 그들의 멋진 강연이 시작된다.
 지식은 물론 인생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관객 뿐 아니라 사원들마저도 넋을 잃고 구경하게 만든다는,
 김영철을 비롯한 MC들의 '비방용'입담 또한 절대 놓칠 수 없는
 녹화장의 '특급칭찬거리'다.

런웨이

모두모두 팝콘으로 오세요~

우리 아이 공부 때문에 밤낮 고민하는 학부모,
 내일의 과학자를 꿈꾸는 멋진 청소년,
 사회에 찌들어 달콤한 꿈을 꾸는 지친 영혼까지~
 남녀노소 모두, 고소한 이야기가 있는 <팝콘>을 한 번 찾아보기 바란다.
 그리고 신나게 강연을 즐겨주기 바란다. 당연히! 물론! 무료강연이다.
 고소한 팝콘까지도.

色 다른 특(talk)··· 국내 최초 날씨 쇼, 캐스터들의 수다!

이세나 기상캐스터 | 웨더채널

캐수다의 발단

"이제 방송은 뭐든 재미있어야 돼요. 리얼로 가야 한다니까요."
"본부장님, 저희 캐스터들끼리 토크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수다 떠는 건 자신 있는데..."
그렇게 시작됐다. 상암동 이전과 YTN 웨더 개국 3주년을 맞아 핫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고 머리를 모으던 중 '캐스터들의 수다'가 탄생했다.
"그래! 그럼 판을 만들어 볼 테니, 어디 한번 재미있게 해 보자고!" 우리의 김호성 웨더 본부장님께서 배에서 우리나라오는 발성으로 크게 외치셨다. 정말 토크쇼를 한다고? 우리가?



저예산 독립예능의 전개

피디 1명, 작가 1명, AD 1명이 주요 제작진의 전부. MC를 맡은 케이웨더 김동식 대표는 거의 진행 무경험, 기상캐스터 4명도 예능 프로 경험 거의 전부. 그것도 새로운 무대 세트가 아닌 기존의 뉴스 스튜디오에서, 있는 카메라 없는 카메라 모두 모아 저예산 독립예능녹화를 시작했다. 우리는 '라디오 스타'를 꺾어보고 심기일전하며 피 토하듯 수다를 떨었다. 녹화가 끝나면 몸을 불사른 양초 마냥 흐물흐물 녹초가 됐다. 또 편집점을 모르는 예능 일자무식 출연자들 덕분에 피디와 작가는 밤샘 편집을 밥 먹듯 하며 단벌옷과 켈한 물골로 좀비 행색이 됐다.

캐스터들의 이미지 위기

방송의 트렌드는 리얼이라 했던가? 거의 애드리브로 가는 토크쇼의 특성상 그동안 고이고이 포장해왔던, 가족에게도 보이지 않던 우리의 본모습이 카메라 렌즈의 투시력으로 파헤쳐졌다. 특히 '진지'와 '지성'을 담당하기로 했던 내가 가장 큰 피해자다. 매 회 클럽 죽순이, 알코올 중독, 트로트 뽕필로 희화화되어 혹시 시부모님께서 방송을 보시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리고 박은실 캐스터는 백치미, 윤유라 캐스터는 무서운 애교, 김수현 캐스터는 거담 왕자로 등극하며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 망가지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 나아 결혼이라도 해서 다행이지만, 김수현·박은실 캐



스터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심히 염려된다.

예상치 못한 절정

그런데 이게 웬일? 기상 캐스터들이 모여 토크쇼를 한다는 소식에 타 매체들이 관심을 보였다. 한겨레, 문화일보 등에서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게재했고, 문화일보 온라인 판에서는 가장 많이 본 기사로 랭크됐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선배들도 "이야~ 캐수다 재미있더라. 잘 보고 있어." 라고 격려해주시고, 7층을 지키는 수문장계서도 항상 YTN 웨더를 틀어놓는다며 힘을 주셨다. "이러다 너무 유명해지면 곤란한데? 민낯으로 마트도 못 가는 거 아니야?"라며 우리끼리 헛된 상상도 해보고 깔깔깔 한바탕 크게 웃어보기도 한다.

위기는 위아~ 물러가라!

우리에게 위기는 없다. 기상팀에서 싹튼 전우애와 긍정 에너지로 신나게 한발 한발 내디딜 것이다. 아직은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단계라 어설피고 뼈저거릴 때도 있지만 하나씩 맞추고 다듬어가며 간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우리 YTN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하다. 단소리 쓴소리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앞으로 캐수다를 향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YTN 사랑해요♥"



당신의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 교수 | 명지대학교

1. 희망찬 인사가 아닌 안타까움으로 첫 인사를...

“조선 민족은 게으르다”라는 누군가의 발언이 대한민국을 혼든적도 있었지만 나는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매일 아침 실감한다. 매일 새벽마다 방송하러 나서는 아침풍경에 대한 민국은 정말 부지런하다.

20년 동안 각종 프로그램과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아침 라디오 진행은 처음이다. 라디오키즈인 나에게 매일 아침 라디오를 통해 청취자들과 만나는 일은 어느 일보다 즐겁고 행복하다.

이렇게 평소 하고 싶었던 라디오 진행이지만 첫 방송을 설레고 기쁜 마음만으로 할 수는 없었다. 첫 방송 몇 주 전 일어난 세월호 참사로 나라가 초상을 치루고 있는 때에 어떻게 방송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세상이 도대체 왜이러니까? 기쁘고 신나야하는 첫 방송.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결국 나는 희망찬 인사 대신 이 세상을 향한 토로로 청취자들과 인사해야만 했다.

2. 함께 분노하고 함께 울며...

처음 몇 주 동안은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데 집중했다. 피끓는 유가족 인터뷰부터 각종 의혹과 문제를 짚는 인터뷰, 논란의 중심에 선 언더 인터스트리 단독인터뷰까지... 인터뷰를 통해 원인분석, 책임자와 정부를 향한 무거운 질타, 그리고 부족하지만 대안을 제시하고자 온 제작진들이 힘썼다.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들을 인터뷰 할 때 슬픔을 억누르기가 쉽지 않았고, 해경과 청해진 해운의 행태를 인터뷰할 때에는 분노를 참기 힘들었다. 아마 청취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했을 것이다.

3. 작심하고 물어보는 <작심인터뷰> + 뉴스를 해부하는 다양한 코너들

하루에도 엄청나게 쏟아지는 뉴스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다루기 위해 제작진들과 함께 뉴스 속에 산다. 많은 뉴스 속에 경중을 가리고, 뉴스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을 발굴하는 작업은 세상을 담는 일이니만큼 어렵지만 흥미롭다. 더욱이 <출발 새 아침>에서는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는 <빅데이터인 뉴스>, 오늘의 뉴스를 역사 속에서 찾아보는 <세대와 시대의 봉우리를 넘어, 세시봉>, 우리 사회 독버섯을 찾아내는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영화 속에서 뉴스를 찾는 <시네마인 뉴스> 등 뉴스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재해석하는 코너가 진행되고 있어 그 재미는 두 배, 세 배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아프고 힘든 뉴스로 청취자들의 아침을 깨우고 있지만 하루 빨리 기분 좋고 행복한 뉴스들로 청취자들의 아침을 깨울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출발 새 아침팀은 청취자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제작진이 뽑은 기억에 남는 인터뷰

안대희 총리 후보 가족의 해외자원개발 의혹 관련한 새정치 박완주 의원 - 인터뷰 다음날 사퇴해 우리 모두 씁쓸해했던 기억이...

이태중 구원파 대변인 - 기자회견 이후 방송 첫 인터뷰로 구원파 내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궤변으로 황당했던 기억이...

김순환 금양호 유가족 대책 자문위원장, 해병대 참사 가족 대표 이호식씨 - 세월호 참사로 다시한번 돌아보게 된 참사들의 피해자. 우리 방송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쏟아져 감사의 인사를 받기도...

권선중 메트로 직원 - 세월호 참사 직후 일어난 지하철 참사를 운몽으로 막아 큰 참사를 막은 의인. 슬픔 속에 희망을 발견해 힘이 났었던 기억이...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 7시10분부터 9시까지

진행 : 신율 교수(명지대, 정치평론가)

제작 : 김혜민 피디

작가 : 이형선, 조은별



"YTN 세계 수준의 뉴스에 도전해야"

윤천석 교수 | 계명대학교 언론영상학과



사람들은 높은 시청률의 드라마와 연예 프로그램을 방송의 최고 콘텐츠로 인식하지만 사실 뉴스가 오히려 방송 최고의 보배다. 모든 TV 프로그램이 본질적으로 스토리텔링인데 TV뉴스는 드라마와 달리 흔히 비정상적인 비약에 의존하는 인위적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놀랍고 신기한 생생한 스토리의 산실이기 때문이다. 뉴스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이야기하는 반전이 가득하다. 이런 점을 눈여겨 본 기업가의 아이디어로 뉴스 전문 채널 CNN이 34년 전 탄생했고, 스포츠 뉴스 전문 채널 ESPN은 CNN보다 1년 앞선 1979년 세상에 나와 공중파를 능가하는 국제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YTN의 미래가 다른 방송매체보다 밝은 한 가지 이유가 여기에 있다.

YTN은 이제 한국의 뉴스 전문 채널로 시청자 의식 속에 깊이 자리잡았다. 마케팅에서 포지셔닝(positioning)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YTN은 시청자 의식 속에 뉴스 채널로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했다. 시청자는 물론 지상파를 포함한 다른 매체 기자도 대형 사건이 터지면 반사적으로 YTN으로 눈을 돌린다고 들었다. 19년간 축적한 재빠른 생방송 노하우로 대형 사건 일수록 YTN의 진가가 나타난다. 세월호 사고의 보도도 그랬다. 사고 발생 후 빠른 화면 송출과 현장 연결, 스튜디오 진행자의 순발력, 현장 출동 기자들의 발 빠른 대처 능력이 타 방송사가 따라오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있다. 가장 손쉬운 '포지셔닝' 방법은 '한 분야의 최초'로 기억되는 것이다. YTN은 국내 최초의 뉴스 전문 채널이기에 시청자 머리 속에 빠르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초창기 시행착오를 거쳐 대형 사건 생방송의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국내 대표 뉴스 채널로 자리매김했다. 어느 분야든 최초라는 수식어로 시청자의 의식에 들어가면 그 확고한 위치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 YTN의 강점이요 브랜드 파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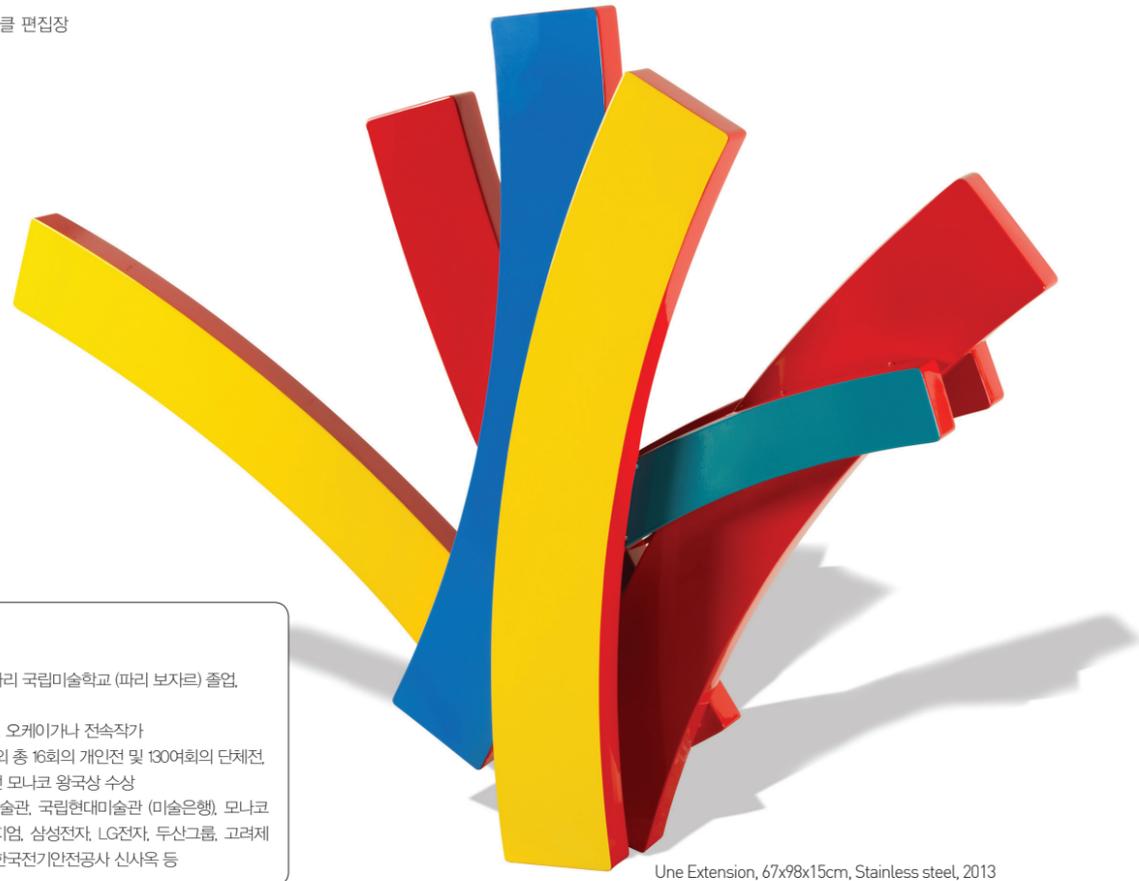
CNN과 ESPN 모두 출범 초기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 수준 이하의 리포팅으로 많은 수모와 비난을 받았다. 당시 기자나 PD들의 언론인 의식은 물론 제작 능력 부족으로 뉴스의 질이 네트워크 뉴스에 비

해 현저히 낮았다. CNN을 만든 테드 터너와 ESPN 설립자 빌 라즈머센 모두 언론인이 아닌 기업인 출신으로 이윤 창출을 우선시 한 것이 큰 이유였다. 그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두 방송사는 이후 기자와 PD의 꾸준한 노력으로 설립 30년을 넘긴 지금 질적으로 미국 내 네트워크 뉴스에 버금가는 품격 있는 뉴스 제작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YTN 역시 기자, 앵커, 기술진의 노하우 축적으로 개국 초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방송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YTN은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넘어 품격이 있는 세계 수준의 명품 뉴스 제작에 도전해야 한다. 이는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뉴스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동시에 기능적으로 프로다운 세련된 방송 실력을 갈고 닦을 때 가능하다. 이런 노력은 시청자의 신뢰, 더 나가 정량적으로 시청률과 점유율로 나타날 것이다.

최근 세월호 뉴스 보도에서 각 언론사는 과열 속보 경쟁의 부작용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시청자들은 뉴스 보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토로했다. 일부 중편은 확인을 거치지 않은 보도로 논란을 초래해 국내 언론사의 뉴스 보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하락을 초래했다. 사회학자인 스텐턴 홀의 이론대로 사람들이 안방까지 전달된 뉴스 메시지를 기자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해석하는 Oppositional reading의 경향이 심화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을 중시하는 뉴스 전문채널 YTN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진리와 정의를 중시하는 언론인 초심과 본연의 자세는 장기적으로 YTN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높이고 더 나가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여 우리 사회의 화합,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하태임의 색채미학 _ 의미의 중첩 '소통' 으로서의 시각예술

홍경한 미술평론가 | 경향아티클 편집장



Une Extension, 67x98x15cm, Stainless steel,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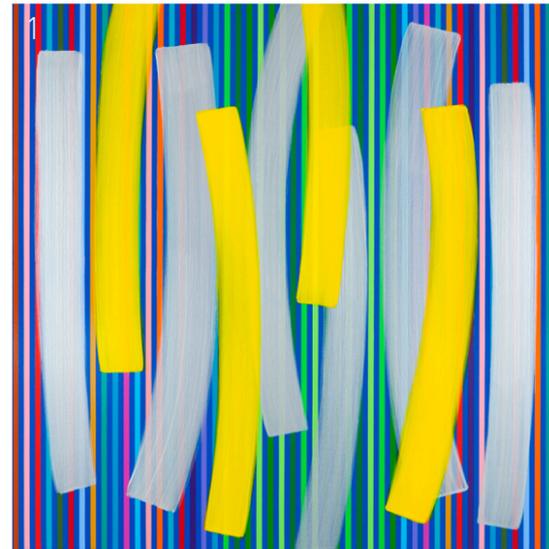
하태임

- 1973년 출생
- 프랑스 다종 국립미술학교 및 파리 국립미술학교 (파리 보자르)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박사
- 현 삼육대 미술컨텐츠학과 교수, 오케이가나 전속작가
- 서울 파리 베이징 원현 등 국내외 총 16회의 개인전 및 130여회의 단체전
- 1999년 모나코 국제 현대 회화전 모나코 왕국상 수상
- 주요 작품 소장처 :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모나코 현대미술관, 태평양 아모레 뮤지엄, 삼성전자, LG전자, 두산그룹, 고려제약, 녹십자, 서울가정행정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사옥 등



하나의 조형 요소인 색(色)에 감정을 입히는 건 쉽지 않다. 늘 색을 다루는 예술가들도 색 자체만으로 복잡 미묘한 인간의 사고와 정서, 느낌과 기분을 감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녹록한 건 아니다.

하지만 작가 하태임의 작업에선 불가능할 것 같은 일련의 현상들이 퇴적되듯 담겨진다. 내면의 상태를 추상으로 치환한 색채 회화의 독창성을 넘어 울동이나 흐름, 차분한 듯 역동적으로 부유하는 에너지를 감지하기란 생각 이상으로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하태임의 작업에는 보는 예술과 읽는 예술의 즐거움이 자유롭게 부유한다. 중첩과 교차를 거듭하는 파랑과 빨간, 노랑거나 하얀 색은 하나의 '선'이면서 '면'이 되고,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거나 끌어안는 형국을 한 채 다양하고 미묘한 감정의 세계를 보여준다. 특히 수십 번의 획이 모여 층을 이룬 색의 겹은 그 특유의 맑음과 밝음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환하게 물들인다. 이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소통과 자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1. Un Passage, 100x100cm, Acrylic on Canvas, 2014
2. Un Passage, 120x60cm, Acrylic on Canvas, 2014
3. Un Passage, 55x120cm, Acrylic on Canvas, 2012

흥미로운 건 하태임 작가의 최근 작품의 경우 회화 이상의 확장성을 내보인다는 점이다. 그는 얼마 전부터 회화가 회화로써 지녀온 위치 규정에 울곧이 응수하지는 않는 태도 아래 회화적인 것과 조각적인 것(선線적인 것)을 교합하는 시도를 펼쳐 보이고 있다.

즉, 이전의 작업이 회화의 형식을 만족시키는 붓질을 본질적 언어로 귀착시키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시각 언어의 확대가 어떤 조타 아래 구현되는지에 대해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조각 <Une Extension> 연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가적 감수성을 가시화하는 것이자 회화를 3차원으로까지 확장시킨 작업에 속한다. 이 시리즈는 현실로부터 유리된 채 미학적인 질이 보장된 영역만을 다루는 듯한 그 많은 추상작업들이 자기실현이라는 목적어에서 벗어나 보다 새로움에 대한 몸짓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이처럼 안주하지 않는 조형의 실험성과 다양성도 시선을 끌지만 가장 단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언어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하태임 작업의 의미로 자리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그의 작업에서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개방성'에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태임의 색 띠 작업에 대해 "무미건조하며, 도형화된 색의 띠들이 움직이고 드러나는 진동의 상황은 바로 작가의 신체, 몸의 확장으로서 기능한다."(미술평론가 조은정)는

입장은 합당하다. 화면에서 단번에 엿보이는 구성주의적 시각이나 응축된 리듬이 만개하는 표현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도 문제될 것이 없다. 나아가 덧칠하며 지우는, 중첩하며 떨어내는 그만의 독특한 조형언어만을 받아들여도 무관할 뿐만 아니라, **삼남동 시대에 접어든 대표 언론으로써의 역할과 가치를 단순하면서도 호방하게 표현한 'YTN' 로고가 선명한 신작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 무수히 쌓이고 덧칠되는 뉴스 속에서 울곧은 방향을 제시하는 미디어 혹은 20여 년간 뉴스전문채널로 시청자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한 길을 걸어온 신념의 상징으로 수용한다 해도 무방하다.**

그의 그림의 방점은 작가의 내적, 심리적 상황을 텃밭으로 한 리듬의 언어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시적으로 표출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상상화 되며 사유할 수 있느냐에 있다. 물론 그의 회화와 조각에 배어 있는 공간의 운용, 선과 색의 조응, 행위를 기반으로 한 무의식의 의식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감정의 결, 환희의 율동과 생명의 순환과 마주할 수 있다면 그의 그림 속 특유의 여적은 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린 이미 그의 작업으로부터 그것에 다가설 수 있는 다양한 힌트들과 조우하고 있다. 눈이 아닌 마음으로, 논리가 아닌 감성의 눈으로 사유할 수 있다면 봉인 풀린 작은 틈과 문 사이에 놓여 있는 색채의 미학, 소통의 미학, 여백의 미학에 당도할 수 있고, 그 여적은 언제나 저마다 다른 기억과 추억, 경험의 재확산이라는 본질로 향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반짝반짝 빛나는 뉴스를 하고 싶어요” 반짝이는 그녀의 일과 삶

김선영 앵커 | 뉴스Q _ 매일 16:00 ~ 18:00

비가 촉촉이 내리던 날, 연희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YTN 김선영 앵커의 사보 촬영이 시작됐다. 7명이 넘는 스태프들, YTN 사보 촬영으로는 이례적인 일이다. 스태프들은 다양한 스타일의 잡지를 보며 김선영 앵커를 어떻게 변신시킬까 논의가 한창이다. 늘 단아하고 딱 부러지는 앵커의 모습에서 벗어나 오늘은 화이트 셔츠와 청바지로 편안한 느낌을, 또 시상식에 막 등장한 여배우 같은 화려한 느낌을 살리기로 했다.

첫 촬영으로 핫핑크 원피스를 입고 현장에 나타난 싱그러운 그녀. 굿은 날씨가 무색하다. 그녀는 2003년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YTN에 입사한 6명의 앵커 중 한 명이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지금, YTN의 뉴스를 이끄는 베테랑 앵커로 활약하고 있다. 그만큼 현장에서 그녀의 에너지는 빛이 난다. 환한 미소로 현장 분위기를 활기차게 이끌더니, 촬영이 시작되니 앵커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변화무쌍한 매력을 내뿜는다. 문득 궁금해졌다. 과연 그녀가 전하는 미래의 YTN 뉴스는 어떤 모습일까? 김선영 앵커와의 달콤한 인터뷰를 통해 그 청사진을 그려봤다.

협찬

장소 / *Creta* 크레타 스튜디오
www.icreta.com, 02-3142-0010 / 0070
촬영 / 전경현 대표

Q. 잡지 표지의 미셸 오바마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데?

지금까지의 영부인들이 조신하고 공주 같은 이미지였다면, 미셸 오바마는 건강하고 적극적인 이미지이다. 그 에너지가 좋다. 이 팔 근육을 좀 보라. 과하지도 않으면서 건강미가 넘치네! 앵커도 결국 시청자에게 에너지를 주는 직업인만큼 늘 건강하고 적극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서려고 노력하는데, 미셸 오바마처럼 밝은 에너지라면 더욱 좋겠다.

Q. 인생의 롤 모델인가?

인생 순간순간 롤 모델이 바뀐다. 방송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오프라 윈프리도 멋있고, 얼마 전 페이스북 COO 셰릴 샌드버그가 쓴 책도 재밌게 읽었는데 진취적이고 멋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열거하자면 여러 명이 더 있는데 얼마 전 미국의 여성운동가이자 국민시인인 마야 안젤루가 타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몇 차례 안젤루의 인터뷰를 본 적 있는데 영적으로 무척 아름다운 흑인 여성이었다. 부드럽지만 강한, 깊지만 무겁지 않은...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인생이 의미 있을 것 같다.

Q. 벌써 경력 10년이 넘는 베테랑 앵커이다!

베테랑 앵커라는 말은 아직 안 어울리는 것 같다. 그동안 많은 일을 스튜디오에서 겪었다. 앵커는 솔직히 외로운 자리다. 남몰래 운 적도 많고, 어릴 땐 '그만둬야지...' 생각한 적도 많다. 10년 동안 크고 작은 상처를 겪고 나니 뭐랄까 정말로, 진심으로 이 회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두 가지 꿈이 있는데 첫째는 다른 방송사가 부러워할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는 뉴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 또 하나는 막강한 능력과 강한 열정으로 똘친 YTN 앵커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우리 조직원 모두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



Q. YTN 뉴스와 생방송의 매력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 순간이 중요하다. YTN 앵커로 매 순간 살아있는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한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가슴이 떨려서 고단하기도 하다.

Q. 오늘의 변신 어땠나?

생방 뉴스 진행 때문에 제대로 콘셉트를 잡고 찍지는 못했지만, 재밌었다. '앵커의 변신' 나는 좀 어설퍼지만 다음 앵커들은 좀 더 파격적인 변신으로 화보를 장식했으면 좋겠다.

Q. 앞으로의 계획

한 언론사 선배는 '앵커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어떤 것이냐'고 여쭙봤더니 '정약력'이라고 답변하셨다. '정약력'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시청자의 눈을 바라봤을 때 많은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꼭 그런 앵커가 되고 싶다. 또 현장과 인방 사이에 유쾌한 가교 역할을 하는 새로운 느낌의 뉴스를 진행해보고 싶다.

정리 : 김시호 방송작가

기자아빠분특기 오! 나의 1진님

양일혁 기자 | 편성제작국



정민
1진님 목 기사

나

아들 시원이

사건팀 인생이 늘 그렇듯 그날도 밤늦게 들어갔다. 진통은 벌써 5분마다 한 번씩 찾아오고 있었다. 경기도 평택이 집인 장모는 나보다 한참 먼저 도착해 아내를 돌보고 있었다. 아내는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진통 간격이 빨라진다는 소식에 콩콩거리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서둘렀는데 막상 아내 모습을 보니 심장은 더욱 방망이질을 해댔다. 다행히 술은 마시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몇 번쯤은 미칠듯한 떨림이 찾아오는 때가 있을 터인데 내게는 바로 이 순간이 그랬다. 애써 침착한 척 아내와 장모를 차에 태우고 핸들을 잡았다.

“땀줄 자르세요.”

간호사가 다소 건조한 말투로 말했다. 정신이 퍼뜩 들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다. 아내는 3시간 넘게 분만대 위에서 신음했다. 아내가 아랫배에 힘을 주느라 내 손을 꼭 움켜쥘 때 내 손에도 역시 힘이 들어갔다. “양일혁!! 나한테 잘 해!!!” “나 여행 꼭 보내줘야 해!!!” 통증에 취해 아내는 자기도 기억 못할 소리를 질러댔다. “그래, 그래! 보내줄게!! 네가 가라 하와이!!!” 건강하기만 해다오, 내 똘똘 못해주겠니. 소극에서 클리셰처럼 나오던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며 머리도 내 주었으나 아내는 다행히 그 정도 품위는 지킬 줄 아는 여자였다.

2012년 9월 18일 새벽 3시 19분.

마침내 아이가 세상에 나왔다. 산모도 아이도 모두 건강했다. 이 기쁜 소식을 어서 전해야 했다. 전화를 들어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새벽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 그래? 축하해.”
“휴가 내야해서 아침 보고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겠습니다.”
그랬다. 처음으로 출산 소식을 전한 건 부모님도, 장인도,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마냥 ‘형님, 동생 언니, 오빠, 친구, 처남, 동서, 사돈’도 아니었다. 캡이었다. ‘사슴의 운명’이란 것이 다 그런 것 아니겠는가. 뺨을 용기도 없는 쓰디쓴 운명이라면 삼키는 수밖에 없다. 삼켜야 할 게 그 뒤로도 많이 남았다는 점이 함정이라면 함정이지만.

“응애 응애 응애...!&%\$^#*~?!!”

아기는 한 두 시간 마다 잤다. 아직 낮과 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우리더러 무언가를 하라고 지시했다. 아아, 이 상황은 매우 낮이 익다. 낮이고



밤이고 귀청을 때리는 1진의 전화벨 소리. 한두 시간마다 취재처를 돌고 해야 하는 보고, 수화기 너머 1진이 깨는 소리, 재촉하는 소리. 기자 세계에서 1진이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는 그래도 한국말이라 알아먹기라도 하지 육아 세계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는 당최 뭘 소리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넘어 육감까지 총동원해야 했다. “기저귀?” “아니!” “밥?” “아니라고!” “놀이달라고?” “장난해?”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걸 몰라? 그렇게 감 떨어져서 기자 해먹겠어?!” 기자인 엄마도 난감해하긴 별다른 바 없었다. 두 기자는 그렇게 밤마다 스위트홈 1진의 의중을 읽어내고 행간을 파악하는 수습 생활을 몇 달째 이어가야 했다. 그리고 지금은...

1진(?)을 열심히 어르고 달래 가르친 결과 밤에도 깨지 않고 푹 자게 됐다. 육아 세계에서 1진이 잠자리에 든다는 건 퇴근

시간을 의미한다. 처음 이 표현을 들었을 땐 어떻게 부모라는 작자들이 그리도 이기적일 수 있냐고 생각했는데 이젠 어느 정도 공감이가 된다. 겪어봐야 안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가 보다. 단, 그렇다고 1진과 함께하는 근무 시간이 지겹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돌아보면 훌쩍 자라있는 녀석의 모습, 순수한 감정, 싱그러운 미소, 애교가 듬뿍 담긴 입맞춤, 조금씩 트이는 입.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삶의 총명한 기쁨을 준다. 이것은 그 어떤 취재 현장에서도, 그 어떤 취재원에 가서도 맞출 수 없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이다. 그러므로 <오! 나의 여신님>에서 케이가 여신 베르단디에게 언제까지나 함께 있고 싶다는 소원을 빌었던 바로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에서 아이에게 건네는 나의 인사.

오! 나의 1진님!!

‘빨리 또 멀리’ 마침을 달리세요!

임수근 제작팀장 | YTN 천산륜회 회장

이게 달인은 아닌데~!

모름지기 달인이라면 자전거를 타고 청계천 징검다리를 한 바퀴로 건너가거나 서울타워 순환 버스를 추월해 올라가는 신공 정도는 펼쳐야하지 않나? 그래도 사보 편집자가 YTN판 생활의 달인으로 인정해 준 까닭은 아마도 회사 동료들이 자전거로 좀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YTN의 상암동 시대를 내심 제일 반긴 사람들은 자전거 출퇴근족 일명 ‘자출족’이다. 송례문 사옥 시절 원호로나 한강로 차량 속을 아슬아슬하게 내달려야만 했던 자출족에게 상암동 시대는 시원한 한강길을 덤으로 선물했다. 하나 둘 늘기 시작한 자출족이 지금은 스무 명이 넘었다.

자출의 장점이야 짐작하겠지만 출근이 곧 운동이라는 점이다. 집에서 회사까지 한강변 꽃길 25km를 한 시간 동안 달리고 나면 몸과 마음도 금세 가벼워진다. 매일 두 시간씩 짬 내 운동하는 독한 ‘님’이 아니라면 자출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이다. 1시간 라이딩에 500kcal 넘게 소모하니까 몇 달 꾸준히 출퇴근하면 금세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 지금은 물론 망가졌지만 본인도 한때 자전거 하나로 10kg 넘게 감량에 성공한 적이 있다.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과 심폐기능을 키

울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자전거 타기다. 자출의 또 다른 장점은 벗을 사귄 수 있다는 점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자전거는 무조건 함께 해야 ‘빨리 또 멀리’ 갈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절대 골프가 성행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선 ‘절대 라이딩’이 유행이라고 한다.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파트너로서 하루 동안 산과 들을 달리고 나면 저절로 신뢰감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천산륜회(天山輪會) - 이곳 저곳을 ‘배회’하며 만들어진 사내 자전거 동호회에 30여 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축신... 요즘 주변에서 ‘너는 자전거를 그렇게 타는데도 왜 배가 안 들어가냐?’ 하면서 자전거 운동의 효과를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서 발려준다. 내 배는 다 근육이요!



최윤석 영상취재부 | 이동규 영상취재2부 | 하성준 차장 영상아카이브팀 | 임수근 부장 제작팀 | 김정남 차장 기술기획팀 | 이경호 차장 편집2부 | 진동진 차장 사회2부 | 김홍준 부장 방송인프라팀 | 조상현 차장 | 이현민 기획총괄팀

IT와 기타의

상상력을 꿈꾸다!



송병준 | IT기술팀

2005년에 YTN에 입사한 IT 기술팀의 송병준(36) 씨. 그는 작년부터 Y-MUSIC (와이뮤직)이라는 사내 음악 동호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입사 시기 막 걸성된 사내 밴드에 단지 대학시절 기타를 쳤다는 이유로 선배에게 끌려갔었던 것이 동호회 활동의 첫 시작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50여 명으로 가장 큰 규모의 사내 동호회가 되었다. 처음에는 바쁜 일정 속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연습한 적도 많았지만, 지금 그에게 일렉 기타와 동호회는 삶의 크나큰 활력소로 다가오고 있다.



정리 : 김시호 방송작가

그가 처음 일렉 기타를 잡은 것은 TV에서 본 어느 밴드의 일렉 기타 솔로 연주를 보고서였다. 전문 용어로 '애드립'이라고 하는데 '즉흥연주'쯤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게 있구나!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 놀라움에서 시작해 고등학교 졸업 후 어머니에게 졸라 기타를 처음 손에 넣었다. 그

리고 일렉 기타의 꽃인 솔로 연주 테크닉에 푹 빠져든 그, 초킹, 슬라이딩, 옥타브 솔로... 그는 지금도 기타연주의 맛을 살리기 위해 홀로 이 '애드립' 연주를 연습한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집에서 잘되는데, 이~상하게 무대에 오르면 큰 동작을 하기가 힘들다는 점! '애드립' 생각하다가 오히려 기타 연주를 놓친다는 것이 단점이겠다;; 이렇게 일렉 기타의 매력에 푹 빠져 살고 있는 지금, 그는 기타의 매력을 이렇게 정의했다. 일렉 기타의 매력은 사람이 못 내는 소리를 음악으로 감동적으로 구현해내는 점이라고 한다.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지만 감정이 들어가면 그만큼 좋은 소리를 내는 매력적인 악기라고 평했다. 그는 자신이 바라는 목표에 올라서기까지 일과 취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거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만족이죠. 저만 그런 건 아니지만 다들 여가 생활 열심히 하면서 꿈을 찾고 있는데 뭔가를 하며 보람을 찾으면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어요. 아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저는 나름대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동호회 사람들과 사내에서 연습하며 일렉 기타를 통해 직장 생활과 삶의 활력을 얻고 있는 송병준 씨. 그는 일렉 기타를 통해 사내의 다양한 직군과 연령대의 직원들을 만나 직장 내 건전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화합하는 장으로 삼고 있다. 송병준 씨의 올해 목표는 꾸준한 연습으로 '와이뮤직'의 실력을 나날이 늘려 올해 상암 YTN 신사옥에서 '연말 공연'을 하는 것이다!

"조만간 열심히 연습해서 신사옥에서 공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동호회에 관심 있는 분들 지나 마케팅 1팀 김명섭씨에게 이야기해주세요! 특히 베이스 파트 구해요~^^"

특별한 뉴스로 더 나은 내일을 전하는 YTN을 다녀와서...!

박수화 | 한세대학교 신방과

평소처럼 수업을 듣던 날, 교수님이 '다음시간에는 YTN을 갈겁니다.'라는 말에 학교 곳곳에 틀어놓은 CNN 뉴스에서 보았던 세월호 속보가 생각이 났다. 세계적인 방송국인 CNN에서 YTN 뉴스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YTN 뉴스가 빠르고 정확한가? 왜 많은 뉴스들 중에서 하필 YTN의 뉴스를 받아서 보도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 YTN이라는 방송국을 하루빨리 보고 싶었다. 설렘으로 시작된 YTN 견학은 신문방송학과생으로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학교에서 교내 방송국 활동을 해서 뉴스에 대해 궁금한 점도 많고, 그만큼 관심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생방송 중인 뉴스 스튜디오를 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견학 코스마다 뉴스에 대한 설명이 그림으로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어 뉴스 제작 현장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YTN의 비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슬로건이 인상적이었다. 'Exclusive Tomorrow', 특별한 뉴스로 더 나은 내일을 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슬로건이 YTN의 비전을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견학을 하면서 느낀 YTN이 정말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이었다. YTN만의 명확한 뉴스 특성과 편성 방향을 가지고 있고, CNN, CCTV 등 세계의 언론사들과 제휴를 맺고 뉴스를 교환하는 것을 보며 보다 나은 뉴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방송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YTN 견학 코스의 마지막은 글로벌뉴스센터 국장님의 강의였다. 뉴스제작과정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는데 하나의

뉴스소스가 만들어지기까지 기자들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고,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를 리얼하게 강의해주시며 언론인으로써 중립성과 공정성, 사실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뜻 깊은 강의였다.

YTN 견학을 통해 '뉴스'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아직은 대학교 교내 방송국이라는 작은 곳에서 뉴스를 만들고 있지만 견학을 통해 보고 배운 것들을 지금부터 활용해보면서 더 발전되고 나은 뉴스를 만드는 방송학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의 방송인이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뉴스를 하게 된다면 '특별한 뉴스로 발전된 내일을 전하는' YTN에서 꼭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 또한 들었다.



YTN 견학을 통해 '뉴스'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아직은 대학교 교내 방송국이라는 작은 곳에서 뉴스를 만들고 있지만 견학을 통해 보고 배운 것들을 지금부터 활용해보면서 더 발전되고 나은 뉴스를 만드는 방송학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I ♥ YTN





J.자르갈사이한

"YTN 통해 국제정세 빠르게 파악해요!"

J.자르갈사이한 | 몽골웹사이트협회장
국역: 양혜숙 |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선임연구원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추진한 '몽골 언론인 및 파워블로거 방한 초청' 사업에 나는 몽골 언론인 대표단의 단장으로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한국을 방문했다. 몽골 언론계에서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대표단은 방한기간 중 한국 외교부, 언론중재위원회, DMZ/JSA, 동아일보, N서울타워를 방문하고, 난타 공연 관람을 하는 등 한국의 진면목을 접할 수 있었다. 방한 3일차, 우리는 한국의 대표 언론기관 중 한 곳인 YTN을 방문했다. YTN 관계자는 YTN이 상암동 신사옥으로 이전한 이후 첫 번째 방문하는 외국 언론인 대표단이라고 설명하였고, 방송국 1층 로비 대형 전광판에 몽골어로 환영인사를 게시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몽골을 주제로 한 장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관련 저서를 집필한 배석규 YTN사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은 몽골 언론인의 방문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유희림 YTN 사이언스 본부장은 'K-사이언스' 사업을 소개한데 이어 몽골 언론사와의 교류 활성화와 몽골의 문화와 역사 다큐멘터리 등 콘텐츠 교환을 희망했다.

금년도 방한 몽골 언론인 대표단 단장으로서 나는 몽골 언론이 YTN 뉴스를 인용 보도하기도 하며, 몽골에서 YTN을 실시간 시청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정세를 신속하게 접하고 있다고 말하고, 언론이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와 인식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는 YTN의 스튜디오를 견학하면서 한국 방송국의 발전상을 목격했고, YTN에서 배울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다.

우리 일행은 YTN과 YTN사이언스채널과의 협력·교류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했고, 'K-사이언스' 사업이 한국뿐 아니라 몽골을 비롯한 전세계 청소년들의 과학교육과 지식 함양에 매우 유익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우리는 세월호 사고 소식에 안타까워하면서, 몽골인들이 한국 국민들과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애도를 표하고, 터브도 바트숨베르군의 바트숨베르 초·중·고등학교 학생 1,100명의 애도 어린 자필 편지를 학생들의 서명·삽화와 함께 안산 단원군에 전달해 줄 것을 YTN측에 요청했다. 몽골 청소년들은 "한국의 또래 친구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세계의 청소년들이 이를 것"이라며 진심어린 추모와 희망의 편지를 우리 일행 편에 보낸 것이다.

우리는 N서울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다가 전망대 유리창에 표시된 서울에서 울란바타르까지의 거리표시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생방송 직전의 YTN 뉴스 스튜디오 현장을 보면서 그 분위기에 함께 긴장했고, 앵커의 자리와 각종 방송장비를 보면서 그 무게만큼 막중한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감에 숙연해졌다.

일반인들은 언론을 통해 세계를 접한다. 외국 언론인을 위한 방한 프로그램은 세계 속에 한국에 대한 인식과 상호인식 향상의 실질적인 기회를 마련해 준다. 우리 일행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한-몽 양국과 국민 간의 보다 폭넓은 이해와 홍보에 유익하며, 양국 언론인 대상 단기연수·상호방문 등의 '프레스투어' 프로그램을 비롯해, '양국 기자 합동취재'를 기획하면 흥미로운 것이라고 방한 기간 동안 이야기꽃을 피웠다.

우리 대표단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YTN을 비롯한 양국 언론인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확대를 희망한다.



일반인들은 언론을 통해 세계를 접한다.
외국 언론인을 위한 방한 프로그램은 세계 속에 한국에 대한 인식과 상호인식 향상의 실질적인 기회를 마련해 준다.



상암도처有맛집



구성: 이은비 | 디지털뉴스팀
카툰: 최재용 | 홍보·시청자팀



식당 <‘식당’ 이라 쓰고 ‘식당’ 이라 읽는다>

“이름이 식당이라고?” 그래 맞아. 말 그대로 ‘식당(食堂)’. 이름에서부터 맛집의 냄새가 나지 않는가? 아파트 단지 상가에 위치해 있는 이곳은 낮엔 밥집! 저녁엔 선술집!으로 운영하고 있다. 많은 메뉴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필수로 시켜야 할 메뉴! ‘돈가스’ 그냥 돈가스가 아닌 정말 두툽한 돈가스! 육즙과 함께 씹히는 식감이 정말 일품이다. 함께 나오는 샐러드와 유부주먹밥도 별미! 이곳엔 좀 더 저렴하게 다양한 메뉴를 먹을 수 있는 세트 메뉴가 있어 여자 3명에서 간다면 이 메뉴를 추천한다. (남자 셋은 단품 하나 더?) 바로 ‘돈가스+해물볶음우동+캘리포니아롤’ 세트! 상큼한 롤 한 입을 하고 두툽한 돈가스가 담백한 식감을 가져다줄 때 짬 새우, 흥향, 오징어가 들어간 매콤한 볶음 우동 한 젓가락을 먹는 순간 오늘 점심은 성공이다.

- ▶ 영업시간: 낮 11:30 ~ 15:00 / 오후 17:00 ~ 0:00 (주말 휴무)
- ▶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5 월드컵파크 4단지 사이동 212호
- ▶ 간단 위치: 월드컵파크 4단지 아파트 상가 2층에 위치 (베스킨라빈스 위 만복국수 옆)
- ▶ 메뉴: 돈가스 7천원, 캘리포니아롤 7천원, '해물볶음우동+캘리포니아롤+돈가스' 세트메뉴 1만7천원 등
- ▶ 문의: 02) 302-9954



가락 <음식 가락이 절로 나오는 곳>

요즘같이 비가 잦은 여름, 집에서 반대떡이나 부쳐 먹지 말고 ‘가락’에서 ‘멸치 쌀국수+파전’의 궁합을 느껴보자. 가격으로나 양으로나 부담스런 ‘보쌈’, ‘파전’을 점심 세트메뉴를 이용하면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 점심 세트는 ‘쌀국수 2그릇+해물파전 or 보쌈’ 1만 7천 원이다. 해물파전의 단품이 1만 5천 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은혜로운 구성! 개인적으로 보쌈세트 구성을 추천한다. 돼지 누린내가 전혀 없는 부드러운 육질의 보쌈과 이삭한 김치맛이 입맛을 돋군다. 국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베트남 쌀국수가 아닌 멸치국수 국물에 쌀국수 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면이 안 탱기다면? 약간의 추가 금액을 내면 다른 메뉴로 변경 가능하다. 그중

에서도 ‘꼬막 비빔밥’ 강추! 아채만 가득한 비빔밥 NO! 오동통한 꼬막들이 입안에서 춤을 추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가락’ 하면 빠질 수 없는 가락의 생막걸리! 종류는 알밤, 연꽃, 유자, 사과 막걸리 등 매우 다양하다. 퇴근 후 밥과 간단히 술을 곁들고 싶다면 고민 말고 가락~ 가라~

- ▶ 영업시간: (평일) 낮 11시 ~ 새벽 2시 / (토요일) 오후 5시 ~ 새벽 1시 / 일요일 휴무
- ▶ 메뉴: 쌀국수(비빔+멸치 선택 가능) 2그릇 + 파전 or 보쌈 1만7천원, 쌀국수(단품) 5천5백원, 꼬막비빔밥 6천원, 막걸리 8천원~만 원
- ▶ 위치: 서울 마포구 상암동 42-14
- ▶ 간단 위치: 채널A 방방 건널목 건너 후 골목 초입 부편 의점 맞은편
- ▶ 문의: 02) 303-1918



행복가 <메뉴 고민은 이제 그만!>

오늘도 점심 메뉴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 이제 그만 넣어둬 넣어둬!! 매일 메뉴가 바뀌는 백반집 ‘행복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밖에서 먹는 음식이 지겨울 때쯤 생각나는 ‘집 밥’ 엄마 밥 만큼은 아니겠지만, 엄마 향수를 달래줄 백반집 ‘행복가’는 밤에는 ‘막걸리+전’을 파는 주점이지만 점심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메뉴를 맛볼 수 있는 백반집으로 변신한다. 가격은 단돈 6천 원! 부담 없는 가격에 반찬 또한 계속해서 리필이 가능하다는 점! 직화 불고기, 제육볶음, 김치찌개, 생선구이, 된장찌개 등이 번갈아 가며 등장하고 다양하고 푸짐한 밑반찬들이 맛을 채워준다. 메뉴도 못 정하겠고 저렴한 가격에 든든하게 한 끼 먹고 싶은 날! ‘오늘의 메뉴’가 궁금해지는 백반 차림은 어떻게?

- ▶ 영업시간: (평일) 오전 11시 ~ 저녁 11시 / 주말 점심 운영X 저녁 주점 이용 가능
- ▶ 위치: 서울 마포구 상암동 15-11
- ▶ 간단 위치: 채널A 방방 건널목 건너 후 골목으로 쪽, 농협 지나서 왼쪽 건물
- ▶ 메뉴: 백반 6천원 / 저녁 메뉴 - 모듬전 1만9천원, 감자전 만 원, 막걸리 4천원 ~ 만 오천원
- ▶ 문의: 02) 376-7782



Culture Sketch

지금, 여기,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다

- 전시명 풀리처상 사진전, Capture the Moment
- 장 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 기 간 2014년 6월 24일 ~ 9월14일 (80일)
- 내 용 1942-2014년 풀리처상 수상작 150여점
2010년 전시 당시 미공개작 50여점 추가
풀리처 수상작가 Max Desfor의 한국전쟁 특별전 30여점
- 입장료 성인 12,000원, 중·고 10,000원, 초·유아 8,000원
- 주 최 중앙일보, JTBC, YTN



풀리처상 사진전

THE PULITZER PRIZE PHOTOGRAPHS
2014.6.24~9.14 /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NOTICE BOARD

복직 이민희 미래전략팀 5.19, 이은경 영상편집부 6.28 / 인사 김윤정 방송행정팀 5.15 / 전보 구수본 사회부 5.19, 최광락 자산운영팀 5.26, 권혁근 방송인프라팀 5.26, 김진국 송출기술부 5.26, 문호석 송출기술부 5.26, 주윤영 제작기술부 5.26, 홍성노 영상취재부 6.09, 김중만 해외방송팀 6.09, 윤원식 영상취재부 6.30, 김민희 영상아카이브팀 6.30 / 휴직 노선숙 그래픽팀 5.11, 김은정 재무회계팀 6.29

[특종상] 금상 세월호 침몰 참사 최초 보도 및 연속 보도 _ 광주지국 김병환, 사회 1부 이만수, 권민석, 최원석 / 은상1 유병언 일가 '늦늦이 모임' 운영 연속 보도 _ 사회 1부 권준기, 이승현, 이종현, 조임정, 김주영, 문화부 나연수 / 은상 2 전쟁지휘부 함참 설계도 외부 유출 연속 보도 _ 정치부 김문경, 황혜경, 영상취재1부 이상은 / 동상 고영 종합버스터미널 화재 1보 보도 _ 사회 1부 우철희, 김경수 / YTN 우수프로그램상 1 '이아기가 있는 박물관' 제작 방송 _ 영상취재 2부 최영욱, 임준모 / YTN 우수프로그램상 2 '청경궁으로의 초대' 제작 방송 _ 사이언스TV 콘텐츠제작팀 김영록

[공로상] 신사옥 성공적 이전 공로 _ 신사옥TF팀 / YTN뉴스퀘어 빌딩 하자보수 및 건물관리 공로 _ 자산운영팀 이길우 / 서울타워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기어 공로 _ 타워운영팀 김병덕 / '오늘의 생활안전' 코너 기획 및 제작 공로 _ 편집1부 김진원, 김현아 / CI변경 화면 개선 및 지반선거 그래픽 제작 공로 _ 그래픽팀 / AR, VR 제작으로 화면개선 기여 공로 _ 화면R&D팀 / 상왕상리역 열차사고 단독화면 연속 1보 처리 _ 영상아카이브팀 유영식 / 선거방송 품질 향상 공로 _ 선거단: 선거단 이지은, 김지선, 그래픽팀 오재영, 기술연구소 신동훈, 이은영, 박해석 / 신사옥 방송장비 이설공사 및 스튜디오 조영공사 _ 방송인프라팀 / I-NEWS NPS 신사옥 이전 구축 공로 _ IT기술팀 / eVCR 개발 공로 _ 기술연구소 강창국 / 신사옥 안정적 이전 및 프로그램 개선 공로 _ 편성제작팀 김보리

[표창] 신규 프로그램 CG, 자막 디자인 개선 공로 _ 편성기획팀 홍희정



푸치니 오페라, 발레의 날개를 달다

- 공연명 강수진 & 인스부르크 발레단 <나비부인>
- 일 시 2014년 7월 4일(금) ~ 6일(일) 금: 8시, 토: 7시, 일: 3시
- 장 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안 무 엔리케 가사 발개[Enrique Gasa Valga]
- 음악 푸치니 초연 당시 원곡, 일본 전통 음악
- 원 작 소설 '나비부인' 존 루더 롱[John Luther Long] 저
- 출 연 강수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발레단
- 티 켓 R 200,000 | S 180,000 | A 120,000 | B 80,000 | C 40,000
- 주 최 CREDIA, YTN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꿈
농협이 함께 꾸는 꿈

